“선명상 특화사찰 운영…국민 평안 앞장”

문화사업단, 2월 11일 신년 간담회
30곳 선정해 선명상 중심지 역할
선명상대회 · APEC 연계한 체험도
‘사찰음식’ 국가무형유산 등재 목표
6월, 전시 · 경연대회 등 한자리서
홈페이지 개선으로 맞춤 검색 가능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2월 11일 관내 화엄실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주요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불안과 스트레스 증가로, 국민 정신건강 함양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올해부터 선명상 템플스테이 특화사찰을 정식 운영하는 등 국민 내면의 평화와 행복 확산에 앞장선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만당 스님, 문화사업단)은 2월 11일 관내 화엄실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주요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문화사업단은 올해도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을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문화콘텐츠로 알리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 △국민 행복을 위한 선명상 템플스테이 확대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연계 특별프로그램 운영 △템플스테이·사찰음식 지역관광 마케팅 기반 강화 △지역 연계 사회 공익 템플스테이 확대 등을 사업 방향으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 국민에게 다가설 계획이다.

우선 국민 내면의 평안을 실현하는 선명상 템플스테이를 확대 추진한다. 현재 158개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가운데 57개 사찰이 선명상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에 문화사업단은 프로그램 운영 횟수와 참가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특화사찰’ 30곳을 선정, 각 지역에서 선명상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선명상을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에 효과적으로 접목하기 위한 교육도 진행한다. 올해 상반기에 템플스테이 지정사찰 주지스님과 지도법사, 실무를 대상으로 선명상의 원리와 이해, 각종 명상법 실참 등을 포함한 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선명상 템플스테이 특화사찰을 중심으로 ‘2025 국제선명상대회’ 기간과 연계해 전국적 특별주간도 운영한다. 전국 약 100개 사찰에서 총 2500명(내국인 2000명, 외국인 500명)의 내외국인들이 선명상 템플스테이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 10월 말~11월 초로 예정된 2025 경주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정상회의와 연계해서도 한국불교 전통문화를 소개하는 특별프로그램을 마련한다. 경주 불국사, 양산 통도사, 부산 범어사를 주축으로 템플스테이·사찰음식 팸투어를 진행할 계획이다.

문화사업단장 만당 스님은 “선명상 등 한국불교 전통 수행법이 현대인의 정신건강에 기여할 수 있음을 세계에 알리고, 이를 통해 문화외교 교류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템플스테이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지속적인 발전을 담보하기 위해선 업무 환경 개선과 전문 인력의 이탈 방지가 꼭 필요하다”며 “내실을 다지고 탄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고민도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불교전통문화의 한 축인 사찰음식도 올해 문화사업단이 집중 추진하는 사업 중 하나다. 특히 올해는 사찰음식의 국가무형유산 등재를 목표로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인다. 오는 6월 7~8일 서울 양재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제4회 사찰음식 대축제’를 개최한다. 사찰음식의 전통과 가치를 재조명하고 나아갈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2015년 이후 10년만에 다시 열린다. 사찰음식 대축제에서는 사찰음식의 원형과 전통이 담긴 전시, 지역 사찰음식 부스, 어린이 미각교실, 사찰음식 경연대회 등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사찰음식의 국제화도 본격화된다. 프랑스의 ‘르 꼬르동 블루(Le Cordon Bleu)’와 협력해 사찰음식을 채식전문과정 정규과목으로 운영 중이며, 올해는 미국 CIA(The Culinary Institute of America), 영국 옥스퍼드대, 이탈리아 미식과학대 등과 학술교류를 확대할 예정이다. 8월 관련 연구자를 초청해 ‘사찰음식 국제학술심포지엄’을 열고 사찰음식의 문화적 가치를 조명할 계획이다.

만당 스님은 “사찰음식의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조리 방법 등을 표준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현재 사찰음식의 개념과 범주, 방법을 정리하고 있고,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잘 다듬어 올해 안에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화사업단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 템플스테이를 강화한다. 청년, 신혼부부, 다문화가정, 소외계층 등을 위한 맞춤형 템플스테이를 제공해 몸과 마음의 치유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사회적 가치 추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해 지역 연계형 템플스테이를 활성화한다. 국내외 관광객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차, 버스, 렌터카 등 다양한 이동수단과 연계한 템플스테이 및 사찰음식 체험 상품을 개발하고, 불교문화체험을 더욱 쉽고 친근한 콘텐츠로 자리 잡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용자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템플스테이 홈페이지를 전면 리뉴얼하고, 오는 2월 20일 오픈한다. 개편된 홈페이지는 개인 맞춤형 검색 기능을 강화하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와 고도화된 예약 시스템을 제공한다. 심지어 외국인 이용자를 위한 해외 결제 시스템과 모바일 접근성을 개선해 글로벌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였다.

동시에 사진, 연구물, 건축물, 영상 등 20여 년간 축적된 자료를 통합해 불교문화콘텐츠 아카이빙 시스템 구축도 구축한다. 올해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2029년 정식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단계별 개발을 진행할 계획이다.

만당 스님은 “불교문화의 가치는 단순히 종교적 차원을 넘어 인류 보편적 지혜와 통찰을 담고 있다”며 “문화사업단은 앞으로도 한국 전통문화와 불교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국민 행복 증진에 이바지하겠다”고 다짐했다.

‘불교와 자연의 아름다움’ 담긴 사진 공모

도반HC, 불교달력 사진 · 작품 공모전
3월 31일까지 접수…대상에 1천만원

조계종 사업지주회사 ㈜도반HC(대표이사 원명 스님)가 ‘제5회 불교 달력 사진·미술 작품 공모전’을 개최한다.

작품의 주제는 ‘불교와 자연의 아름다움’이다. 불교 달력으로 제작 가능하고, 불교의 정서에 어긋나지 않는 사진이나 미술 작품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단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반드시 첨부해야한다.

㈜도반HC는 “불교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거나 봄·여름·가을·겨울 사계절을 조화롭게 담는 등 특정 주제를 정해 12컷의 사진이나 미술 작품으로 구성”하라고 출품의 요령을 귀띔했다. 그러면서 “동자승의 사진을 출품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한다”며 “캘리그래피, 일러스트, 판화, 수묵화, 어반스케치 등 화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창작 방식이 응모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응모 기간은 2월 21일~3월 31일이며 ㈜도반HC 홈페이지(www.dobanhc.co.kr)에서 신청서 및 동의서 양식을 내려받은 후 작성, 작품과 함께 이메일(dobancalendar@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 크기 : 가로·세로 400mm 이상 / 해상도 300dpi 이상 △ 확장자 : jpg, jpeg, png 이미지 파일(출품자명.zip으로 압축 후 제출) △ 파일명 : 사진 (촬영 장소_작가명) / 미술 (작품명_소재_크기_작가명). 수작업의 경우는 고화질 스캔본 파일로 제출해야 한다.

대상 1명(팀)에게는 상장과 함께 1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대표이사 원명 스님은 “인문학적 소양과 새로운 것에 대한 공감 능력을 갖춘 실력 있는 예술가들이 대거 참여해 자리를 빛내주길 바란다”고 참여를 독려했다.

수상자는 4월 11일 개별통보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시상식은 4월 18일 예정이다. 우편과 방문 접수 불가. 02-0671-0678 **임은호 기자**

원각사 520년만의 재건…무료급식소도 개소

2월 12일 이전 후 첫 배식 시작
식사 · 간식 300인분 어르신들에
“청년 · 어린이 복지도 확대할 것”



탑골공원 인근에서 30년간 무료급식소를 운영해온 사회복지원각이 원각사 재건 불사를 회향하며 새로운 무료급식소의 문을 활짝 열었다.〈사진〉

대한불교조계종 원각사(주지 원경 스님)는 2월 12일 이전한 원각사 무료급식소(서울 종로구 종로17길 32)에서 무료 급식을 시작했다. 현장에는 원각사 주지 원경 스님, 민일영 전 대법관, 정문헌 종로구청장을 비롯한 봉사자 15여 명이 참석했다.

원각사는 조선 세조10년(1464년)에 낙성돼 연산군에 의해 폐찰됐다. 창건 560년, 폐찰 520년만에 새로운 도량의 문을 열게 된 것. 원각사 무료급식소는 도량 재건과 정월대보름을 기념하며 어르신들에 점심공양과 함께 땅콩, 콩 백설기, 두유 등 간식을 나눴다.

원각사 무료급식소는 점심시간에 맞춰 300인분의 식사를 준비해 어르신들에 제공했다.

이날 봉사자로 나선 원각사 주지 원경 스님과 민일영 전 대법관은 직접 앞치마를 매고 어르신들에 밥과 반찬을 나눴다. 두 사람은 식사하러 온 어르신들에 음식을 전하며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시라”며 인사를 건넸다.

공양을 마치고 간식까지 받은 주호점(89, 불광동) 어르신은 “잘 마련된 식사를 배부르고 흡족하게 잘 먹었다”는 소감을 전하며 “소외 어르신들을 위해 늘 수고하고 있는 원각사 무료급식소 봉사자 분들에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원각사 주지 원경 스님은 “10여 년 동안 떠돌이 무료 급식을 하다가 비로소 새 건물과 새 법당을 마련해 어르신들이 편안한 공간에서 식사하는 것을 보니 더없이 기쁘다”며 “앞으로 새로운 공간에서 노인 복지뿐만 아니라 청년, 어린이 복지까지 확산해 갈 수 있는 대원력을 발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봉사자들을 대표해 민일영 전 대법관은 “가장 큰 복은 음식을 나누는 복”이라며 무료급식소 봉사의 의미를 강조했다. 민 전 대법관은 “그동안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은 모두 국민에게 나온다는 생각을 하고 그 빚을 갚는다는 심정으로 봉사를 시작했다”면서 “어르신들이 배부르게 식사하고 흐뭇한 표정으로 돌아가시는 걸 보는 것만큼 기분 좋은 일이 없다. 앞으로도 많은 이웃들이 봉사에 동참해 함께 이런 기쁨을 나누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가령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인증
승려연수과정

2025년 승려연수교육
현대인을 위한 생활 수행과 포교

▶ 생활수행과 현대적 포교방안
• 화엄세계 : 수행과 담선
• 생활 속의 마음공부 – 치유와 공감
• 현대적 생활 수행과 포교 방안
• 커뮤니케이션과 포교
• 대승기신론과 한마음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소중한 인연에 감사합니다.

▶ 연수 개요
• 연수인증 : 조계종승려연수과정 (30점)
• 기 간 : 2024년 7월 17일(수) ~ 19일(금) (2박 3일)
• 장 소 : 경주 황룡원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
• 강 사 진 : 승단 전문강사진 – 청동스님 (동국대 불교학 박사 수료) 등
재 가 교 수 진 – 이화행 교수 (동명대), 황수경 교수 (동국대) 등
• 교 육 비 : 20만원 (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 인 원 : 40명 (선착순 마감)
• 문 의 : 031-470-3200/3201 (일, 월 휴무)
• 웹사이트: http://hansi.org

QR코드를 스캔 하시면
바로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